

## 자작나무로 만든 ‘말다래’에 그린

# ‘천마도’

글\_ 이종호 과학칼럼니스트 mystery123@korea.com



**경**주의 고분공원인 대릉원(大陵苑)에서 관람객이 안으로 들어가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무덤이 바로 천마총(天馬塚)이다. 천마총은 1970년대초에 경주의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주시 황남동 미추왕릉지구에 있는 옛 무덤들 중 가장 큰 98호를 발굴·전시하기 위해 먼저 발굴한 것인데 광복 후 최초로 신라 금관이 출토되어 세상을 놀라게 한 무덤으로도 유명하다.

### 삼국시대를 통틀어 最古의 공예품 장식화

천마총은 전형적인 적석목곽분이다. 바닥은 지표에서 약 2m 정도 파내려가서 거기에 사질점토층을 약 1m 깔고 그 위에 황토층을 약 10cm, 그 위에 다시 흑갈색 흙을

10cm, 그 위에 부식토를 5cm, 그리고 자갈이 섞인 단단한 점토층을 15cm 깔아 넣어서 만들었다. 또한 이 바닥의 바깥 주위에 지름 20cm 정도의 냇돌을 높이 1.2m 쌓아 올리고 흙으로 마감했다. 이 바닥 위, 즉 나무로 된 목곽이 설치되는 부분 아래쪽에는 사람 머리 크기 만한 돌(냇돌)이 빼곡하게 깔려있다.

목곽의 전체 크기는 높이 2.1m, 길이 6.6m, 폭 4.2m, 두께 8cm의 밤나무로 만들어졌다. 본관과 부장품을 넣은 상자는 느티나무로 만들어졌고 이 목곽을 지키기 위해 바깥틀을 구축하고 측면에 냇돌을 채우고 목곽을 덮듯, 전체적으로 빈틈없이 냇돌을 쌓아올렸다. 적석층(돌무지층)은 무려 6m에 달하며 그 위로 봉토를 약 6.7m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

두께로 올려 완성했다.

신라 금관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의 이름을 천마총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곳에서 천마도와 기마인물도 목판 그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 천마도의 크기는 가로 75cm, 세로 56cm, 두께 0.6cm로 용도는 '말다래'이다. 장니(障泥)라고도 불리는 말다래는 말안장에서 늘어뜨려 진흙이 사람에게 튀는 것을 막는 장식이다. 말안장의 좌우에 매달린 것이므로 처음 발굴될 당시에는 2장이 겹쳐 있었다. 한 장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으나 같은 그림으로 된 나머지 한 장은 무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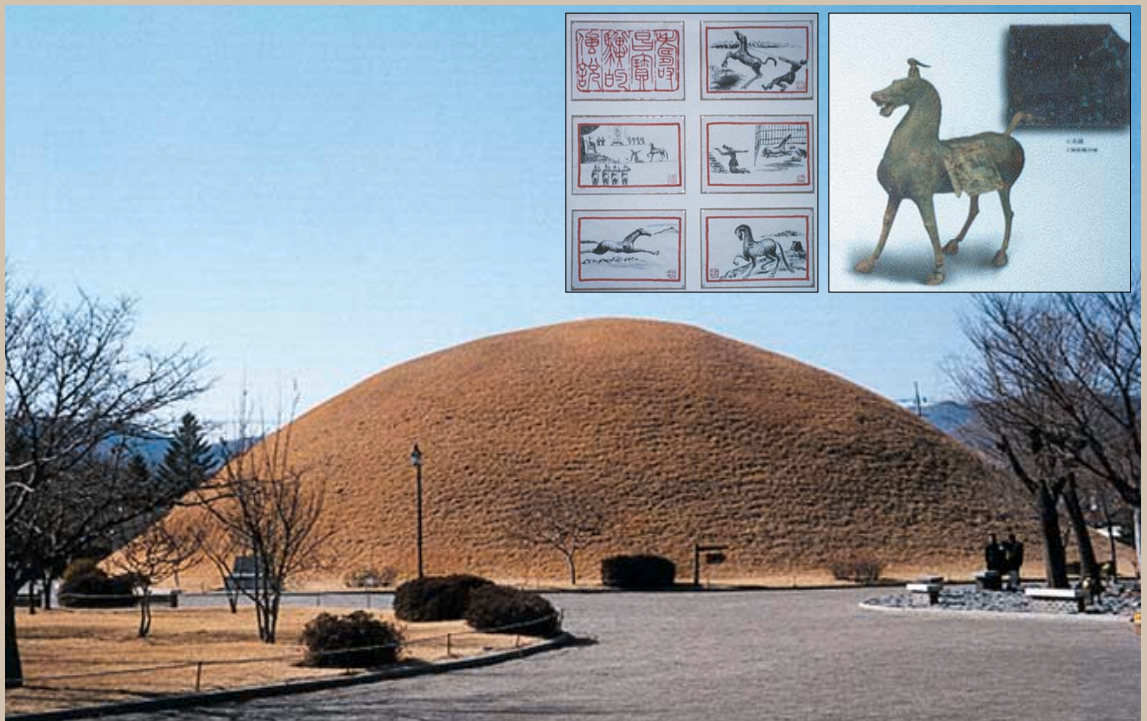
이 그림은 신라뿐 아니라 삼국시대 전체를 통틀어 벽화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 흰 말이 말갈기와 꼬리털을 날카롭게 세우고 하늘을 달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그림과 비교하여 날카로운 묘사력이나 힘찬 생동감이 뒤떨어지지만 천마도가 공예품의 장식화임을 감안하면 매우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는 공예가가 그린 것으로 추정한다. 그림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붉은색, 흰색, 검은색을 이용하여 단아한 느낌을

주는데 색깔을 내는 칠감의 원료는 흰색이 호분이며 검은색은 먹, 붉은색은 주사와 광명단이라는 일종의 납화합물이다.

최근에 이르러 천마총의 천마 그림이 말이 아닌 기린, 즉 기린도(麒麟圖)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기린은 성인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의 짐승을 말한다. 몸은 사슴과 같고 꼬리는 소의 꼬리에, 발굽과 같기는 말과 같으며 빛깔은 5색이라고 알려져 있다. 고대 중국에 있어서 기린은 우주운행 질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신으로 사후세계의 수호자, 천년을 살고 살생을 미워하며 해를 끼치지 않는 덕의 화신으로 여겨왔다.

#### 방수성 뛰어난 자작나무껍질을 캔버스로

천마도는 당시 흔히 쓰이는 천이나 비단, 가죽이 아니라 나무껍질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재료가 무슨 나무인지가 관심사였는데, 중앙임업 연구원은 목판의 재질은 백화수피(白樺樹皮)라고 발표했다. 백화수피의 백화는 자작나무를 뜻하므로 그림은



천마총과 천마도(간쑤성 양판박물관)

자작나무 껍질 위에 그린 것이다.

대부분의 나무껍질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깊게 골이 패이며 표면의 색깔이 흑갈색인데, 자작나무 종류는 독특하게 색깔이 하얗고 표면이 매끄러운 껍질을 갖는다. 또한 큐틴이란 일종의 방부제가 다른 나무보다 많이 들어 있어 잘 썩지 않고 곰팡이도 잘 피지 않는다. 또 왁스 성분이 많아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높은 방수성도 갖고 있어 수천 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어도 부패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

자작나무껍질로 만든 말다래는 고신라 시대에 접어들어 비로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자작나무껍질 세공은 오늘날에도 시베리아에서 남러시아 지방까지 민간 도구·민속공예품 제작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소재이자 전통 기술이다.

천마총 유물 중에서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것은 말다래뿐만이 아니다. 왕관에 부속되는 관모도 자작나무 껍질로 만들었다. 두 장의 자작나무껍질을 봉합하여 만들었는데 나무껍질이 세로로 된 섬유를 따라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섬유와 비스듬히 교차시켰다. 또한 봉합실에 의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무껍질이 안으로 꺾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봉합하였다. 자작나무껍질을 소재로 다룬 사람은 매우 숙련된 인물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자작나무껍질제 관모의 껍질이 건조되어 휘는 것을 막기 위해 버팀천이나 버팀가죽을 붙여 비스듬히 격자모양으로 꼼꼼하게 봉합되어 있는 점을 보면 말다래의 소재로 쓰인 자작나무껍질을 다룬 사람은 자작나무의 성질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작나무 껍질에는 방수성의 밀랍 성분이 있어 땀이나 흙탕물에도 방수 기능이 탁월한데 이는 기마에 통달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그림 자체를 볼 때 말은 생생하게 그려진데 비해 말을 에워싸듯 그려 넣은 주위의 인동덩굴무늬는 당시 고구려나 신라 혹은 중국에서 발견되는 인동덩굴무늬와는 달리 매우 치졸함을 느낄 수 있다. 인동덩굴무늬의 기본 조건인 반복되는 덩굴무늬가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천마도는 신라 왕실의 세공 장

인이 그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박상진 교수는 설명했다.

한편 박 교수는 근래에 천마도를 그린 캔버스는 북방지역에서 잘 자라는 자작나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천마도의 캔버스는 북방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태백산 줄기에서 발견되는 거제수나무나 사스레나무 껍질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자작나무와 이들 두 나무의 세포형태가 현미경으로 보아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재질이 유사한데다 신라에서 ‘흰 나무껍질’의 수요가 많았다고 짐작하는데 이들 모두를 북방에서 수입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나 이 문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에 의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 천마도의 모델, 서역의 천마를 연상

천마의 모델은 어디에 있는가도 관심거리이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에서는 과거에 천마도에 나오는 천마와 같은 말이 생산되지 않았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서라벌대 이진락 교수는 중국에서 발견된 한 유물에 주목했다. 1977년 발굴된 중국 간쑤성 주취안(酒泉)시의 정가갑(丁家關) 5호 고분 벽화에 ‘천마’가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 천마는 유려한 몸매에 구름을 주위에 두르고 하늘을 날아가는 형상인데 천마총 장년의 천마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졌다. 이 교수는 “중국 땅에서 오로지 주취안시의 고분벽화에만 천마그림이 나왔는데 신라 서라벌 천마총에서 천마도가 발견된 것은 고대 두 도시간의 문화교류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주취안시는 중국 만리장성의 서쪽 끝에 위치해 역사에서 말하는 위진남북조시대 5호16국의 하나였던 서량(西凉)국의 수도였다. 주취안 일대는 실크로드의 관문이었고 서량국은 신라와 문화적 교류관계가 활발했으므로 정가갑고분의 천마와 천마총의 천마는 아마도 같은 뿌리일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의 간쑤성과 신장성은 과거에 실크로드의 둔황을 포함하는 서역 지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곳의 천마는 중국과 매우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천마는 한무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무제는 중국을 부단히 괴롭히는 흉노를 견제하기



눈 속의 흰자작 나무-천마도의 캔버스는 한반도에서 잘 자라지 않는 자작나무 껍질 위에 그렸다. 무덤의 주인이 북방계 열이라는 증거로 자주 제시되던 것이다.(『바이칼, 한민족의 시원을 찾아서』)

위해 서역 지방에 있는 대월지에 파견하여 한나라와 연합으로 흉노를 정벌하자고 장건을 사절단으로 파견했다. 대월지는 간쑹성 둔황을 근거지로 했으나 서기 150년경 흉노에 쫓겨 서북쪽의 인도 간다라 지방으로 이동하여 세운 나라이다. 이들은 기원전 80년경 그리스 원정군이 세운 박트리아를 멸망시킨 후 쿠산(Kusan) 왕조를 세워 간다라 중심의 세계적인 대제국을 세웠으며 한국의 불교 예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장건의 임무는 순탄치 않아 당시 서역 지방을 장악하고 있던 흉노에 사로잡혀 10여 년 동안이나 억류되었다. 장건은 흉노에 억류되었지만 천신만고 끝에 흉노로부터 탈출하여 대월지를 방문했으나 그들은 흉노와의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결국 장건의 임무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패했지만, 그는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까지 갔다 오는 동안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한무제에게 보고했는데, 무제를 가장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것은 천리를

달리며 피땀을 흘린다는 한혈마 즉 페르가나의 천마였다.

무제는 페르가나로 사절단을 보내 항복을 종용했으나 실패하자 결국 대규모 원정군을 파견했다. 이들 원정군은 우여곡절 끝에 페르가나를 포위했으나 페르가나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한나라의 원정 목적이 천마 확보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만약 한나라 군이 공격한다면 천마를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무제의 원정군은 소량의 군마를 받고 한나라에 조공한다는 조건으로 철수했다.

### 천마총, 지증왕 무덤일 가능성 높아

이들 천마는 현재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대와 당대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작품 속에 활용하여 그 유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들 자료를 보면 천마총의 천마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서역 지역이 상당기간 북방기마민족인 흉노의 지배를 받았는데 적석목곽분을 건설한 신라의 지배 계급이 흉노의 북방기마민족계열임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학자들을 가장 아쉽게 만든 것은 무덤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 명문 등 결정적인 단서가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자들은 무덤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제일 먼저 무덤이 어느 시기에 조성되었는가를 추적했다.

천마총에서 수습된 나무곽의 목질편을 시료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실시한 탄소연대 측정 결과는 서기 340년 전후에 무덤이 조성되었다고 발표되었고 오차 범위를 감안하여 서기 270~410년 사이에 조성되었다고 해석되었다. 반면 재래적인 방법으로 유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천마총은 서기 500년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비정되었고, 현재는 서기 460년에서 540년 사이에 무덤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시기에 타계한 임금은 서기 458년 눌지왕, 479년 자비왕, 500년 소지왕, 514년 지증왕, 그리고 540년 법흥왕 등 다섯 분이지만 조유전 박사는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서기 514년에 타계한 22대 지증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